



Geopolitical Research Monthly

#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IV 트럼프 2.0 본격 대비



▶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 2024년 7월 15일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트럼프 2.0 본격 대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의회 선거가 1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보다 석 달이나 빠른 6월에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이 개최된 이후 트럼프의 리드가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피격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판세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교체 논쟁이 있으나 대안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 하원 다수당 확보 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이 없는 한 트럼프 2.0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 1기와 달리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집권 2기를 준비해왔다. 당선 시 주요 정책이 보수 지향으로 선회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노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4대 쟁점 정책은 '감세, 관세 인상, 화석에너지, 규제 완화' 등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트럼프의 정책은 금융시장이 선호하는 것들이지만, 산업 및 무역 정책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 선거 결과와 더불어 11월 선거 이후 의회의 권력 구조도 중요하다. 각각의 이슈들이 향후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팀은 7월 이후부터 2024년 미국 선거 동향과 영향에 대해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할 예정)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유승민 팀장/이사(兼 글로벌투자전략팀장)  
strategist.you@samsung.com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박주란 연구원  
juran.park@samsung.com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  
이지혜 연구원  
jhye53.lee@samsung.com

# CONTENTS

---

##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IV

<b>PART 01. 선거 상황 중간 평가</b> .....	4p
<b>PART 02. 트럼프 경제 정책 4대 쟁점</b> .....	13p
<b>PART 03. 트럼프 산업 정책과 주식 바스켓</b> .....	24p
<b>PART 04.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시사점</b> .....	35p
<b>PART 05. 참고 (대선 공약 비교)</b> .....	38p



# PART 01

## 선거 상황 중간 평가



## 요약

### ▶ 실패로 돌아간 바이든의 6월 승부수와 트럼프 피격 사건 발생

- 역대 미 대통령들 1차 임기의 4년 차 6월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연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
- 2차 대전 이후, 6월 말 지지율이 40%를 넘기지 못한 대통령 4명 중 3명이 연임에 실패 (포드 예외)
-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6.27일에 첫 TV 토론회가 열림 (여론 반전을 모색한 바이든 vs. 사법 리스크 희석을 노린 트럼프)
- 결과는 바이든에 오히려 악수(惡手)가 되었으며 민주당 내 후보 사퇴 압력이 분출
- 게다가 7월 14일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기 피격 사건은 트럼프의 우위를 고착화시킬 전망
- 사건 직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서 승자 전망은 트럼프 67% vs. 바이든 24%까지 차이가 확대

### ▶ 민주당 후보 교체되더라도 '68년보다 불리

- 당시 존슨 대통령은 재임을 준비했으나 1.30 규정 공세 이후 베트남전 열세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
- 닉슨을 중심으로 단결된 공화당과 달리 분열됐던 민주당은 험프리로 후보를 확정된 뒤 열세를 보이다 막판 추격했으나 패배
- 현재 美 민주당은 대중적 지지가 높은 대체 후보가 없으며, 선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트럼프의 유리한 구도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 농후
- 한편, 최근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과 달리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다소 높게 예측
- 그러나 민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하원 선거도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

### ▶ 트럼프 2.0에 대한 대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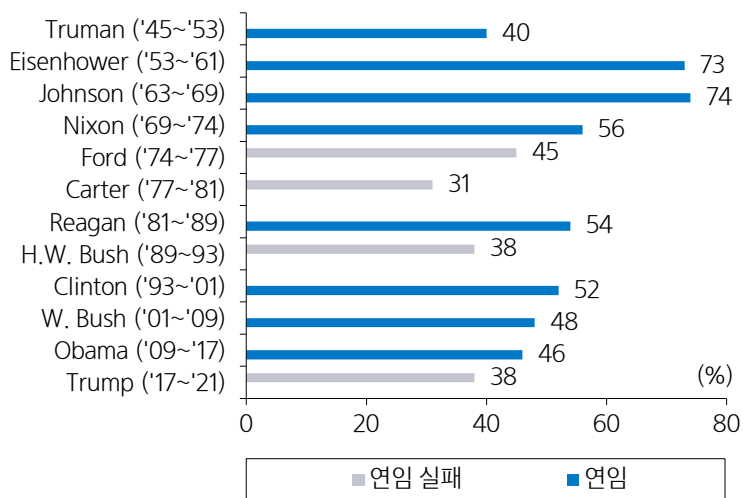
-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트럼프 2.0에 대한 대비 필요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핵심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섹터 선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 등을 점검

## Part 1. 선거 상황 중간 평가

# 실패로 돌아간 바이든의 6월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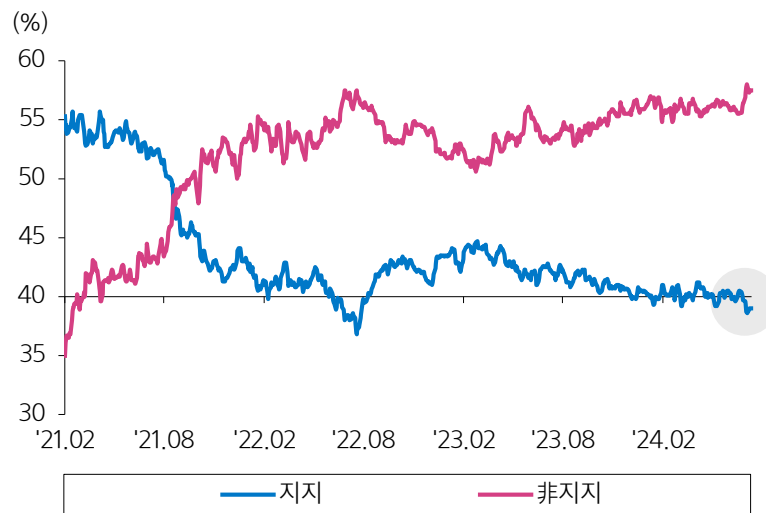
- 역대 미 대통령들 1차 임기의 4년 차 6월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연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 : 2차 대전 이후, 6월 말 지지율이 40%를 넘기지 못한 대통령 4명 중 3명이 연임에 실패 (포드 제외)
- 과거의 경우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은 양당의 전당대회(7~8월)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 개최 (올해도 당초는 9월 예정이었음)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6.27일에 첫 TV 토론회가 열림 (여론 반전을 모색한 바이든 vs. 사법 리스크 희석을 노린 트럼프)
- 결과는 바이든에 오히려 악수(惡手)가 되었으며 민주당 내 후보 사퇴 압력이 분출

## 역대 대통령 4년 차 6월 말 지지율과 연임 여부



자료: 갤럽, 삼성증권

##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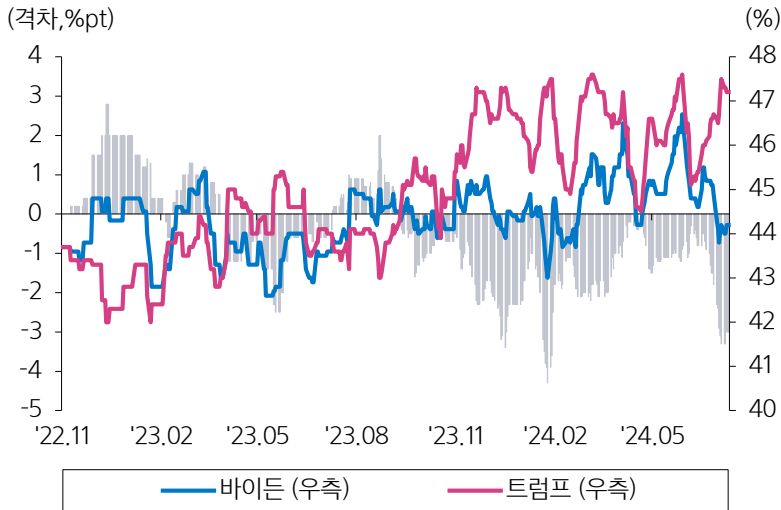


참고: 주요 언론 평균 지지율 기준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 펜실베니아 피격 이후 트럼프 우위 고착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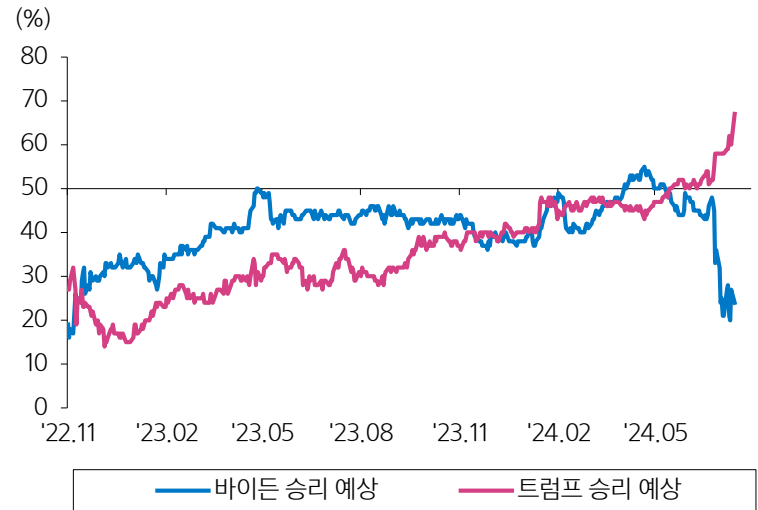
- 7월 12일 기준, 트럼프 vs. 바이든 간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는 3%p 수준으로 확대 (2월 공화당 경선 시작 당시와 유사)  
: 비호감 투표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의 특징과 과거 후보 간 지지율 차이로 볼 때 결코 적지 않는 지지율 차이
- 특히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우려가 높아진 점은 선거뿐 아니라 2기 임기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높임
- 게다가 7월 14일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기 피격 사건은 트럼프의 우위를 고착화시킬 전망이다  
: 사건 직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서 승자 전망은 트럼프 67% vs. 바이든 24%까지 차이가 확대 (피격 사건 발생 직전인 7월 12일은 트럼프 60% vs. 바이든 27%, 정치적 지지율이 아님은 주의)

## 2024 美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바이든 vs. 트럼프)



참고: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회색 막대 그래프는 후보 간 격차  
자료: 갤럽,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 베팅 사이트의 대선 승자 예측



참고: PredictIt 제공, 7월 15일이 최종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Swing State 지지율도 트럼프가 압도

- 민주, 공화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세가 분명한 주들과 달리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는 Swing State가 결국 대선 승패 결정 : 1988년 이후 9차례의 대선 투표 결과를 종합할 때 당사는 10개주를 Swing State(競合州)로 정의
- 지난 대선에서 Swing State 중 민주당이 승리한 주 중 7개는 득표율 차이 3%pt 미만의 박빙 (親민주 4개주, 親공화 3개주) : 이는 2016년 대선에서도 유사했던 현상인데, 트럼프 대통령(후보)의 카리스마에 대한 상충적 반응 때문으로 이해됨
-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버지니아를 제외한 9개 Swing State에서 트럼프의 리드가 고착화되고 있음

## Swing State 평균 지지율 차이 (트럼프 - 바이든)

구분	트럼프 지지율-바이든 지지율(%pt)										트럼프 우위 州	바이든 우위 州
	親민주당 성향 Swing States					親공화당 성향 Swing States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버지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아이오와	애리조나	조지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24.01	-0.1	5.1	-4.4	0.3	7.0		4.5	7.0	10.0		6	2
'24.02	-0.8	3.6	-4.4	1.0	7.7		5.5	6.5	9.5		6	2
'24.03	0.2	3.5	-4.3	0.8	3.0	11.5	5.2	5.2	10.0		8	1
'24.04	1.0	1.2	-4.3	1.8	4.5	11.5	5.0	3.8	10.0	9.0	9	1
'24.05	2.3	0.5	-3.0	0.1	5.4	11.5	4.0	4.8	10.0	9.0	9	1
'24.06	2.8	0.5	-2.2	0.0	2.8	11.5	5.6	4.0	10.0	7.6	8	1
'24.07	5.3	0.6	-2.2	2.2	5.2	11.5	5.4	4.0	10.7	7.6	9	1

참고: Swing State 성향은 당사의 '24년 1월 지정학 분석 보고서(2024년 지정학의 최대 변수,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서 분류, 해당 월말의 평균 지지율 기준, 7월 12일 기준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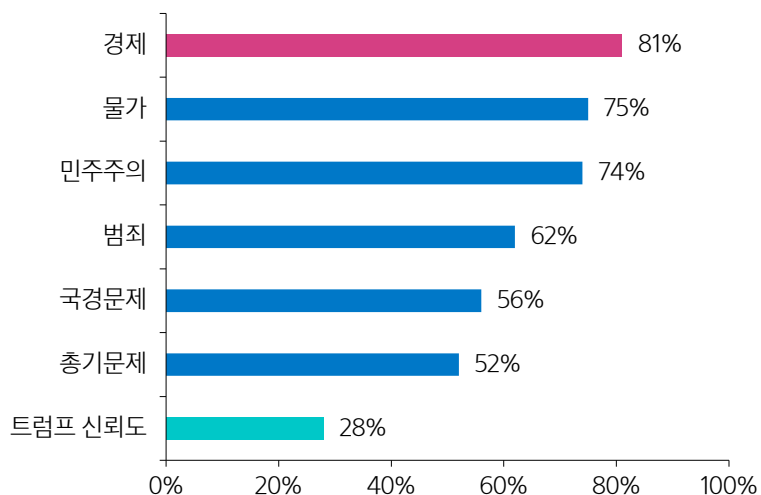


## Part 1. 선거 상황 중간 평가

# 유권자들의 관심은 결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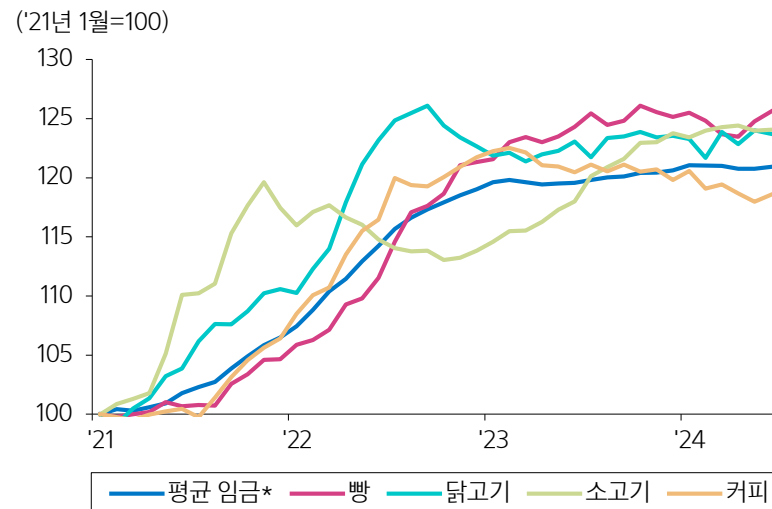
-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아닌 ‘경제 운영 능력’에 방점
  - : 5월 말 뉴욕 맨하튼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트럼프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으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큰 영향받지 않음
  - : 유권자들은 11월 대선에서 대통령 선출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경제’를 지목
- 올 들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고,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인색
  - : 대중은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의 안정보다 바이든 재임기 중 실질 구매력의 하락에 대해 현실적 불만을 가지는 것

## 투표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참고: CBS & YouGov 조사 (6월 5~7일 실시, 트럼프 입막음 스캔들 유죄 평결 직후)  
자료: CBS, 삼성증권

## 바이든 취임 이후 소득 vs. 주요 생필품 물가 증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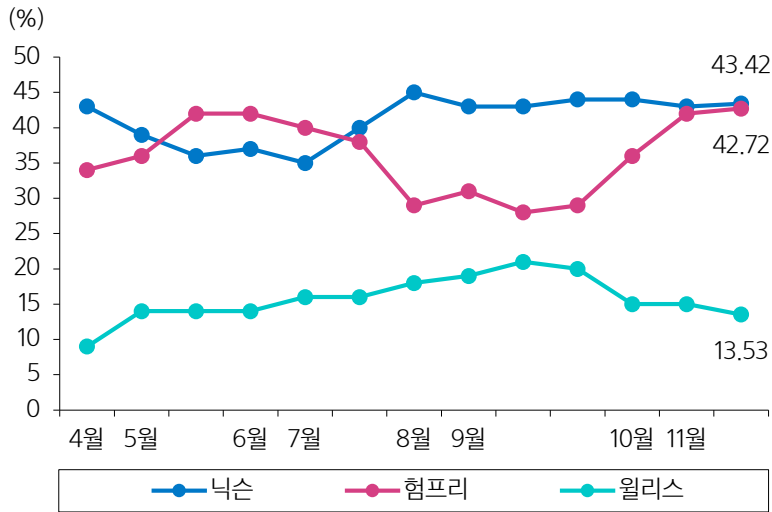


참고: \* 시간당 평균 임금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민주당 후보 교체되더라도 '68년보다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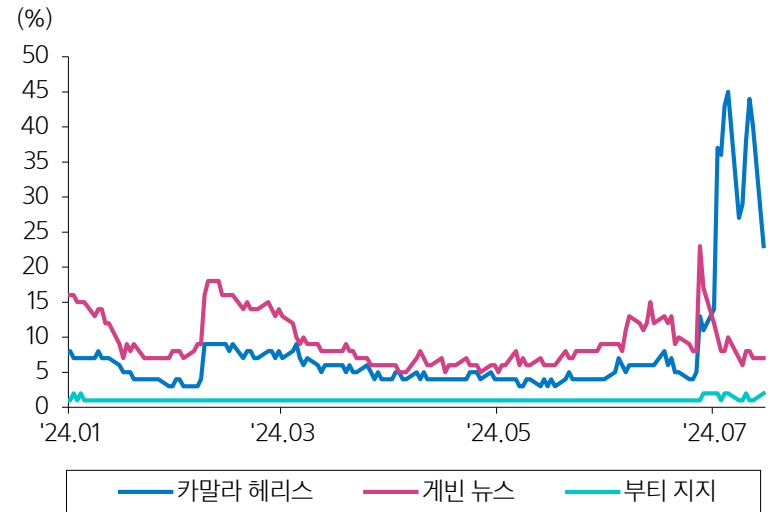
- 1968년 존슨 대통령은 재임을 준비했으나 1.30 구정공세 이후 베트남전 열세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중도 포기
  - : 존슨은 '휴버트 험프리' 상원의원을 후보로 지지. 이에 대항해 전쟁 반대파인 '유진 매카시'가 경선에 참여
  - : 흑인과 대중 지지가 높은 '로버트 F 케네디'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으나 6월에 암살 당함
  - : 닉슨을 중심으로 단결된 공화당과 달리 분열됐던 민주당은 험프리로 후보를 확정된 뒤에도 열세를 보이다 막판 추격했으나 패배
- 현재 美 민주당은 대중적 지지가 높은 대체 후보가 없으며, 선거를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후보 교체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1968년 美 대선 여론 흐름과 최종 결과



참고: 리처드 닉슨(공화당), 휴버트 험프리(민주당), 조지 월리스(미국 독립당)  
 자료: 갤럽(나무위키에서 인용), 삼성증권

## 베팅 사이트의 민주당 대체 후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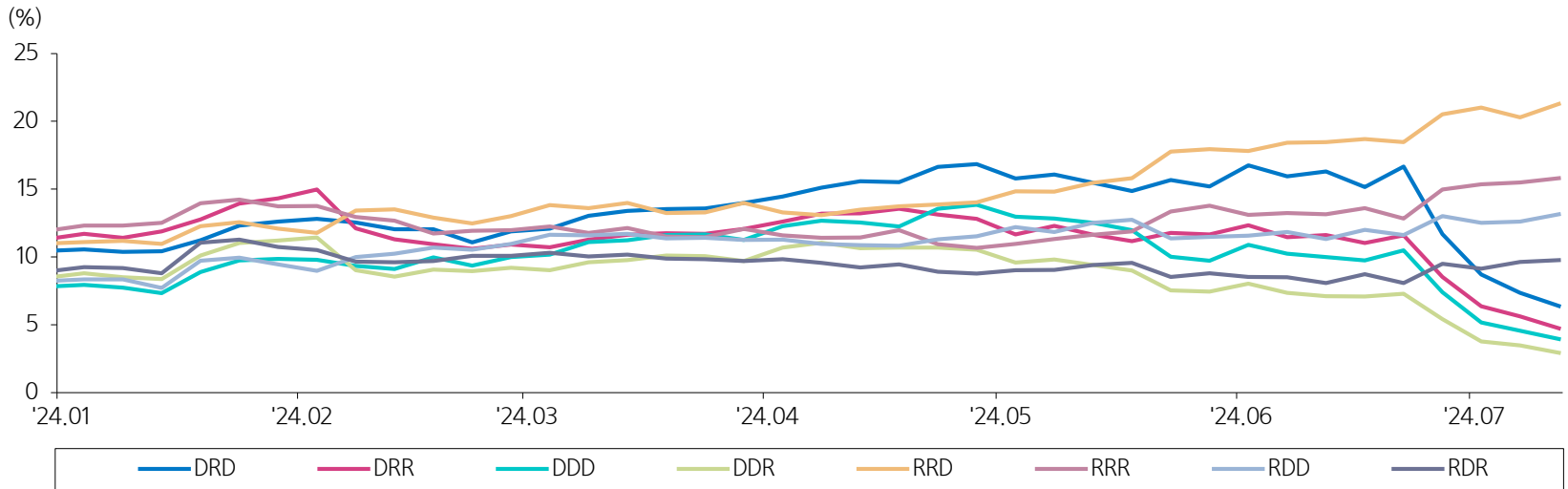


참고: 7월 15일이 최종치  
 자료: PredictIt, 삼성증권

# 통합 정부 가능성은 아직 낮음

- 통합 정부(Unifi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강력해짐
- 이와 달리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는 법안 통과, 조약 비준, 내각 및 법원 인사 등에서 의회의 협조가 중요  
 : 1970년대 이후 빈번한 현상(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순기능 vs. 정책 추진에서 과도한 정치화 비판)  
 : 정치적 합의의 난관으로 일몰조항을 통한 법률 통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
- 최근까지 여론조사는 대통령 후보로서 바이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예측 중  
 : 그러나 민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하원 선거도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

## 11월 선거에서 美 권력 구조 예상



참고: 대선 후보, 상원, 하원 여론조사 교차 확률에 근거  
 자료: RealClearPolitics, Race to WH, 삼성증권

- 향후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트럼프 2.0에 대한 대비 필요

구분	바이든 공약 (민주당)	트럼프 공약 (공화당)	
대중국 전략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risking</li> <li>• 현행 대중 관세 유지(평균 관세율 19.5%)</li> <li>•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li> <li>• 수출통제 강화(첨단분야 한정, 동맹 동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rategic decoupling</li> <li>• 보편적 상호 관세 적용(트럼프 임기 내 60%로)</li> <li>•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MFN) 철폐</li> <li>• 수출 통제 범위 확대(금융 투자, 지적 재산, 인력 등)</li> </ul>	
공급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 니어·프렌드쇼어링</li> <li>• 동맹·파트너 역할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위주</li> <li>• 자국 중심 공급망</li> </ul>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Multi-lateral)</li> <li>• 동맹·파트너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 간(Bi-lateral)</li> <li>• 보호무역주의</li> </ul>	
환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그린전환</li> <li>• 기후변화 적극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산업 육성</li> <li>• 기후변화 회의론</li> </ul>	
산업 정책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확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유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li> </ul>
외교,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주의(Internationalism)</li> <li>• 중국 및 러시아 견제</li> <li>• 러·우 전쟁 지속 (장기적 유리 판단)</li> <li>• 우크라이나 NATO 편입</li> <li>• 동맹 연계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주의(Isolationism)</li> <li>• 중국 견제 우선</li> <li>• 러·우 전쟁 조기 종결</li> <li>• 우크라이나 NATO 편입에 소극적</li> <li>• 동맹에 비용·역할 압박</li> </ul>	
美 국내 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확대</li> <li>• 고소득층, 기업 세율 인상</li> <li>• (공통)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내수 경기 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감소</li> <li>• 전반적 감세, 규제 완화</li> <li>• (공통)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내수 경기 부양</li> </ul>	

자료: 산업연구원(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24.5), 삼성증권 재정리

# PART 02

## 트럼프 경제 정책 4대 쟁점



## 요약

### ▶ 쟁점 #1. 세금 감면 - TCJA의 연장과 영구화 추진

- 트럼프는 '25년 말에 일몰하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연장 및 영구화 추진
- 법인세(현행 21%)와 개인 소득세의 추가 인하 공약,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으로 재정부족분 보충 주장
- 대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세(buyback tax, 1%)는 유지될 전망이나, 최저 법인세(15%)는 폐지에 방점 → IRA 재원

### ▶ 쟁점 #2. 관세 인상 - 보편적 기본 관세, 대중국 보호무역 강화

- 트럼프는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한 연방 세수 확보로 소득세 감세, 장기적으로 폐지를 공언(All-tariff Policy; 전방위 관세정책)
-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입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
-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최저 관세 부과 (현재 평균 수입 관세율은 3%)
- 중국에 대해 필수품의 수입 금지 관련 4개년 계획 시행 및 관세 단계별로 인상하여 최대 60% 부과 공약

### ▶ 쟁점 #3. 에너지 정책 - 친환경 대신 화석 에너지 장려

- 에너지 정책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pro-America energy policy)’을 표명
-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인프라(발전소, 송유관, 송전망, 항만, 정유시설, 해운 터미널 등) 건설 투자 및 지원
- 고비용 친환경 대신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 세계 최저가 전력 공급’으로 산업 지원, 제조업 유치
- IRA는 폐기를 천명하고 있으나, 행정명령 등을 통한 무력화가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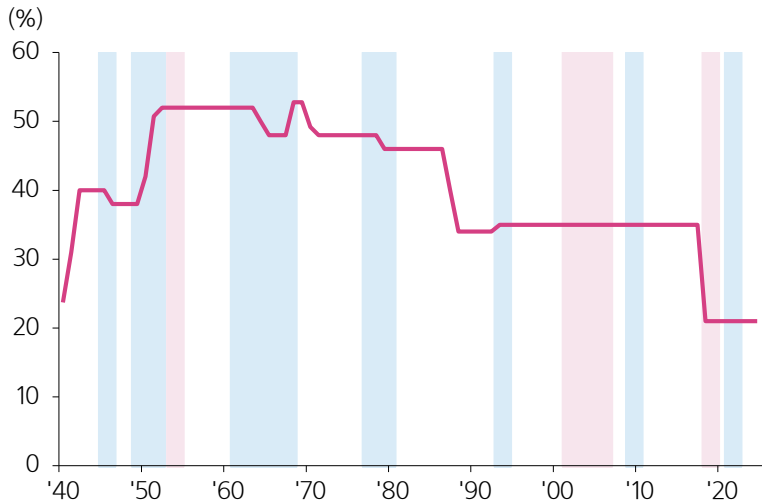
### ▶ 쟁점 #4. 규제 완화 - 금융에 유리

-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과 은행지주들에 대한 ‘바젤III 최종안’ 시행 유보
- 비은행 금융기관(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가상화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 SEC 위원장의 교체를 통한 암호화폐 정책의 변화, 핀테크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축소 예상

# 쟁점 #1-1. 세금 감면 - TCJA의 연장, 영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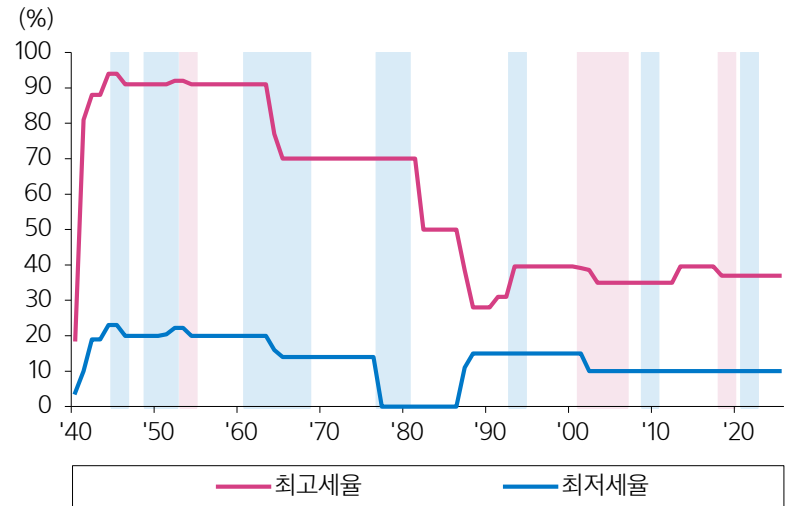
- 트럼프는 '25년 말에 일몰하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연장 및 영구화 추진
  - : '18년 1월 법 시행 이전 법인세는 35%였으나 현행은 21% 영구화 → 법인세 1~6%pt 내외의 추가 인하 시사
  - : 위 법 시행 이전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39.6%이었으나 37%로 인하하는 등 구간별 2.6~4.0%pt 세율 낮춤 →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을 통해 개인 소득세율 역시 추가 인하 공약 (17pg 이하 참고)
- TCJA의 연장 등은 의회 동의 필요. 양원, 특히 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하지 못한다면 갈등 불가피
  - : 트럼프는 재집권 시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공약 vs.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 (현행 21% → 28%, 대기업 최저 세율 15% → 21%)

## 美 연방 법인세 추이



참고: 음영은 권력 구조(대통령-상원-하원 지배정당), 파랑색은 DDD, 빨강색은 RRR  
자료: Tax Foundation, 삼성증권

## 美 연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최저 세율 추이



참고: 음영은 권력 구조(대통령-상원-하원 지배정당), 파랑색은 DDD, 빨강색은 RRR  
자료: Tax Foundation, 삼성증권

## 쟁점 #1-2. 세금 감면 - IRA 자원 조달 계획과 충돌

- 최저 법인세(Minimum tax)는 바이든 정부 IRA의 주요 자원 중 하나 vs. TCJA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폐지 주장
  - : 3년 평균 10억 달러 이상 수익기업을 대상으로 2023 과세연도부터 15% 부과되며, 향후 10년간 IRA 자원 중 약 30% 차지
  - : 의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공화당의 통합 정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TCJA 연장 vs. IRA 유지'의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행 1%의 자사주 매입세(buyback tax)는 유지될 전망이나, 바이든의 계획과 달리 트럼프 당선 시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음
  - :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활동에 큰 영향 없고, 공화당 역시 법인세 인하 자원 마련에 현 수준의 세금은 필요하다는 공감대

### IRA 자원 조달 계획

주요 자원	(십억 달러)	비중 (%)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	265	36.0
최저 법인세 (Minimum Tax, 15%)	222	30.1
국세청(IRS) 과세 집행 강화	124	16.8
자사주 매입세 (1%)	74	10.0
손실 한도 확대	52	7.1
<b>계</b>	<b>737</b>	<b>100.0</b>

자료: 백악관, 주요 언론, 삼성증권

### 美 주요 기업의 '최저 법인세' 규모 추정

기업명	예상 세액 (백만 달러)
Berkshire Hathaway	8,331
Amazon.com	2,772
Ford motor	1,851
AT&T	1,549
Ebay	1,333
Moderna	1,218
Nvidia	982
Duke energy	802
Charter Communication	662
Nextera energy	575
Paramount global	571
Bio-rad Laboratories	532
DOW	500

참고: '21년 수익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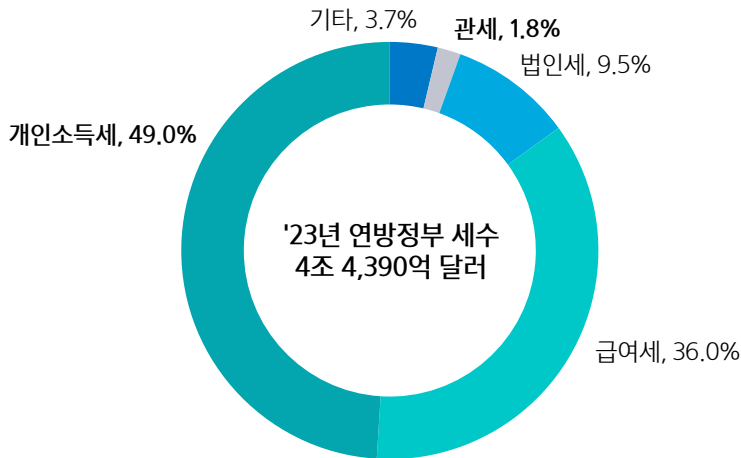
자료: UNC Tax center, Bloomberg, 삼성증권



## 쟁점 #2-1. 관세 인상 - 보편적 기본 관세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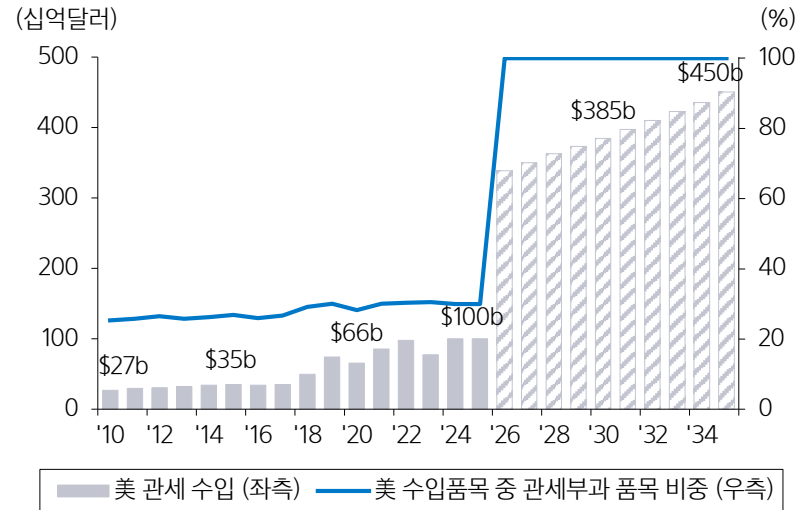
- 트럼프는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한 연방 세수 확보로 소득세 감세, 장기적으로 폐지를 공언(**All-tariff Policy; 전방위 관세정책**)
-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입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
-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최저 관세 부과 (현재 평균 수입 관세율은 3%)
  - : '23년 기준 연방정부 수입에서 개인 소득세는 약 49% 차지하나, 관세의 비중은 1.8%에 불과
  - 기본 관세 시행될 경우, 2026~35년 회계 연도 기간 중 약 2.5조 달러의 세수 증가 예상
  -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있으나) 2035 회계 연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4~7% 감소 전망

### 美 연방 세수의 주요 부문별 비중 ('23년 기준)



자료: Peterson 연구소, 삼성증권

###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 시 美 관세수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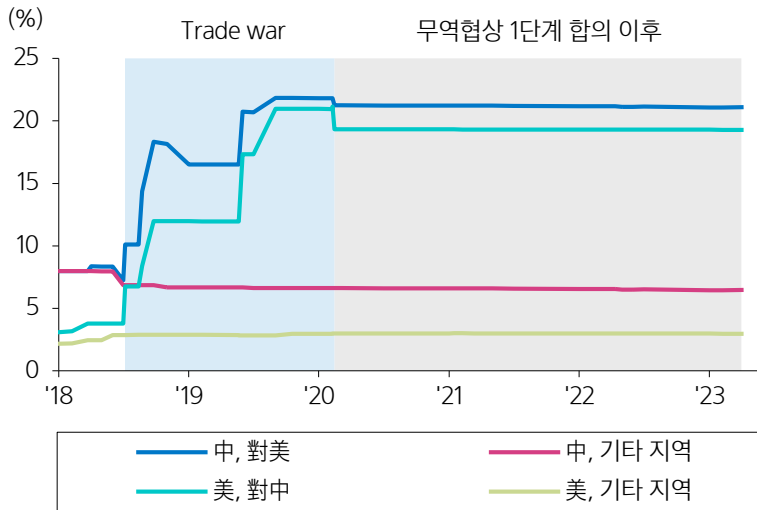


참고: '10~'23년 관세 수입은 확정치, 빗금친 '26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재정국, 삼성증권

## 쟁점 #2-2. 관세 인상 - 對중국 보호무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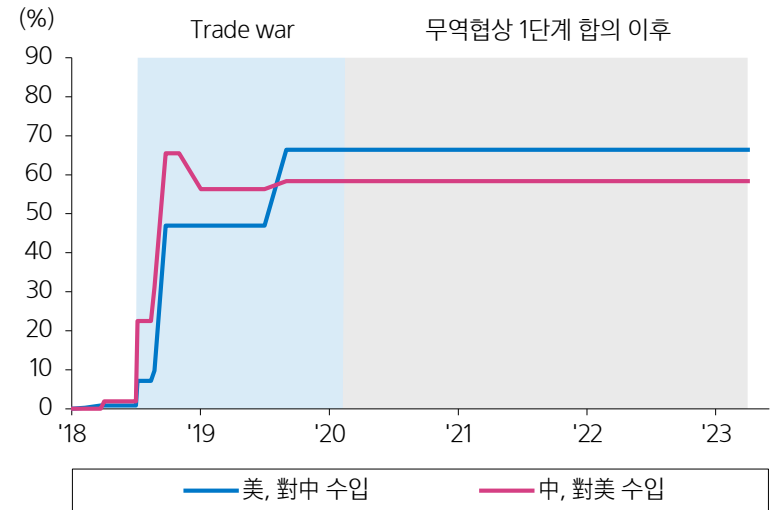
- 트럼프 1기였던 '18년 중반부터 미국은 대중국 수입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해 현재는 평균 관세율이 약 19.3% (중국도 18.3% 부과)  
: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약 66%가 고관세 부과 대상 품목 (vs. 중국은 대미 수입 중 58%가 대상, PIIE, 2023년 4월 추정)  
: 대중국 최고 관세율 25%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활성 의약품 원료, 친환경 에너지 발전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 및 통신 장비 등
- 트럼프는 재집권 시, 대중국 무역 강경책 고수 천명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 단속, 우회 수출 차단 등)  
: 특히 필수품의 수입 금지 관련 4개년 계획 시행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 대중 관세 단계별로 인상하여 최대 60% 부과 공약

### 미-중 상대방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율 추이



자료: PIIE, 삼성증권

### 미-중 상호 수입 중 고율 관세 적용 품목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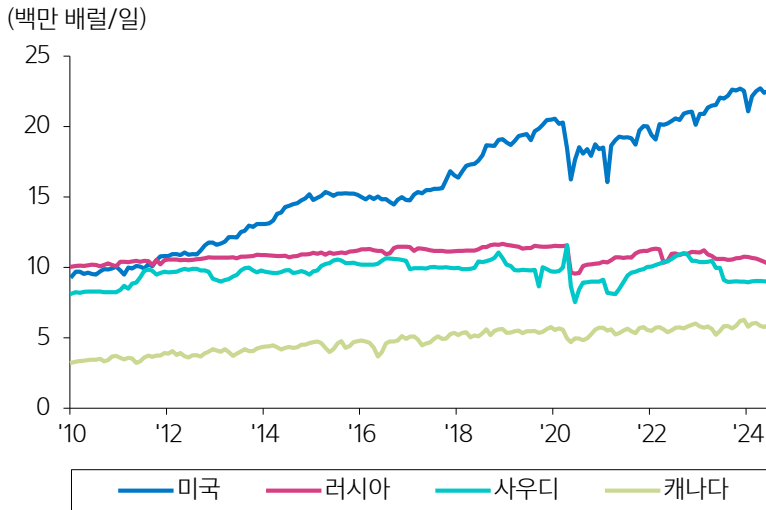


자료: PIIE, 삼성증권

## 쟁점 #3-1. 에너지 정책 - 친환경 대신, 화석 에너지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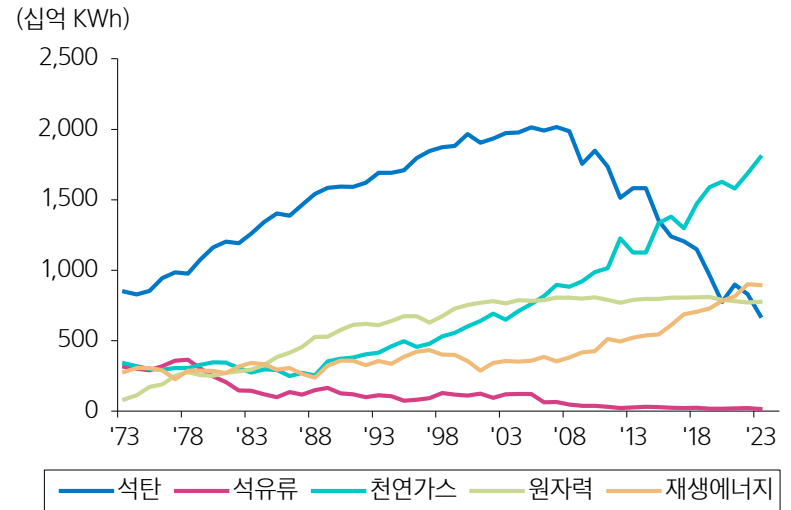
- 에너지 정책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pro-America energy policy)'을 표명
  - : 트럼프의 보수 싱크탱크인 'Heritage 재단'은 기존 에너지부(DOE)를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DESAS)'로 개편 권고
  - :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인프라(발전소, 송유관, 송전망, 항만, 정유시설, 해운 터미널 등) 건설 투자, 관련 지원
    - 고비용 친환경 대신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 세계 최저가 전력 공급'으로 산업 지원, 제조업 유치 (美는 전 세계 최대 산유국)
-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화석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증세 정책 폐지, 금리 통제 요구
  - : 예를 들어 원유 및 석유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 즉 '슈퍼펀드세(superfund tax, '22~'31년까지 유효)' 폐지 주장

### 주요국 원유 생산량 추이



참고: Total Liquid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미국 에너지원별 전력 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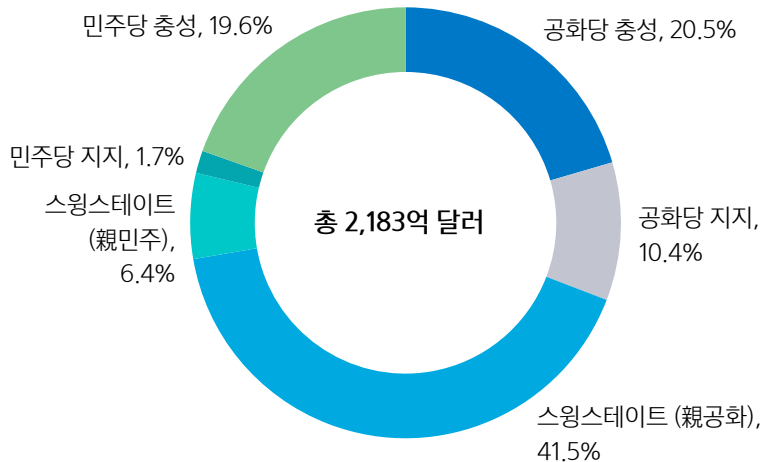


자료: EIA, 삼성증권

## 쟁점 #3-2. 에너지 정책 - IRA 무력화

- 트럼프는 IRA의 폐기를 천명하고 있으나, 행정명령 등을 통한 무력화가 유력(당사 지정학 분석 '24년 6월호 참고)  
: 법률 폐기를 위해서는 양원에서의 압도적 지배가 필요하며, 공화당 지지주를 포함해 IRA에 대한 각 주별 이해가 다르기 때문  
: 예를 들어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EPA 규정 완화 ('30~'32년까지 신규 경차의 30~56%, 중형차의 20~32%를 BEV로 판매)
- 공화당이 양원 의회를 지배한다면 CARS법(Choice in Automobile Retail Sales Act)을 재입법 시도 등이 있을 전망  
: 환경보호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확정,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23년 12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만 통과)

### 바이든 임기 중 지역별 첨단/친환경 투자 유치 비중



참고: 역대 대선 지지 성향에 따른 8개 분류 (당사 1월 지정학 분석 보고서 참조)  
자료: SIA Analysis, Wisevoter, 삼성증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주요 세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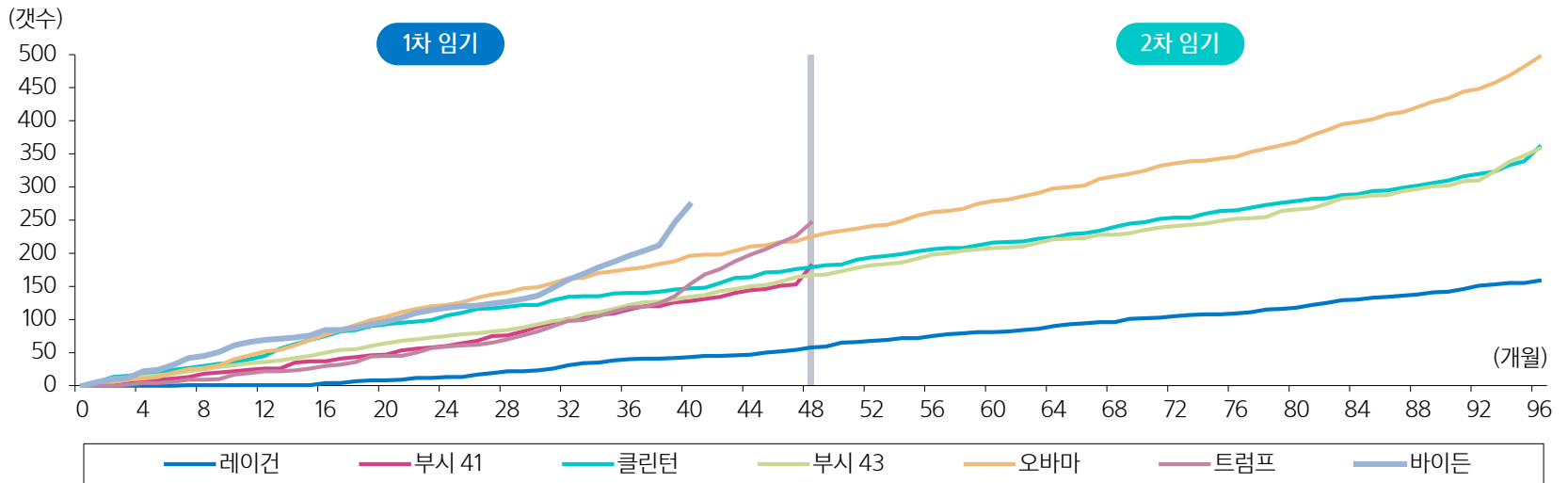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 특징
기업대상 ITC: Investment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기술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 (투자만으로도 수령 가능한 세제 혜택)</li> </ul>
기업대상 PTC: Production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 (발전량에 따라 제공되는 세제 혜택)</li> </ul>
소비자 대상: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3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li> <li>• 밴, SUV, 픽업트럭은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5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모델</li> <li>•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은 40% 이상 ('27년까지 80%로 상향) 북미에서 추출</li> <li>•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 ('29년까지 100%로 상향) 북미에서 제조</li> </ul>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재정리

## 쟁점 #4. 규제 완화 - 금융, 암호화폐, M&A, 브로드밴드 등

-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과 은행지주들에 대한 ‘바젤III 최종안(자기자본 평균 16% 확대)’ 시행 유보(‘25년 7월 시행)  
: 금융회사의 기후 정책, 레버리지 한도, 임원 보수 등에 대한 조사도 지연될 수 있음
- 비은행 금융기관(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가상화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시행 유보  
: 옐런 재무장관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준의 감독을 받도록 제안
- SEC 위원장의 교체를 통한 암호화폐 정책의 변화, 핀테크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축소 예상

### 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중 시행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 건수



참고: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규제, 2024년은 5월 말 기준  
 자료: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gulatory Studies Center, 삼성증권

# (참고) 트럼프 법인세 인하 효과 : 산업

- 美 ITEP(세제 및 경제정책 연구소)에 의하면 TCJA 시행 이후 '18~'21년 사이 미국 주요 기업의 감세혜택은 약 2,400억 달러 :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TCJA 시행 이전 대비 평균 22%에서 12.8%로 하락

Industry	'13~'16년 (기간 소계, 백만달러, %)			'18~'20년 (기간 소계, 백만달러, %)			실효 세율 변화 (%pt)
	이익	법인세	실효 세율	이익	법인세	실효 세율	
Electronics, electrical equipment	1,665	515	31.00	1,640	153	9.30	-21.6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5,036	1,400	27.80	8,902	1,068	12.00	-15.8
Network and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	2,889	812	28.10	4,493	556	12.40	-15.7
Health care	67,175	23,524	35.00	122,582	23,885	19.50	-15.5
Industrial Machinery	37,695	10,472	27.80	42,437	5,258	12.40	-15.4
Retail & wholesale trade	283,906	88,309	31.10	441,722	70,685	16.00	-15.1
Semiconductors & other electronic components	53,496	14,287	26.70	99,629	12,019	12.10	-14.6
Miscellaneous services	164,143	40,341	24.60	165,176	18,315	11.10	-13.5
Engineering & construction	10,080	2,795	27.70	24,014	3,623	15.10	-12.6
Medical Products and Equipment	11,150	2,687	24.10	14,948	1,714	11.50	-12.6
Food & beverages & tobacco	64,862	17,378	26.80	76,550	11,081	14.50	-12.3
Financial data services	55,056	16,056	29.20	80,298	13,686	17.00	-12.1
Aerospace & defense	53,693	13,446	25.00	74,140	10,377	14.00	-11.0
Telecommunications	208,009	37,663	18.10	247,859	18,208	7.30	-10.8
Internet Services & Retailing	17,106	4,732	27.70	80,757	14,336	17.80	-9.9
Computer software	14,051	3,419	24.30	23,807	3,622	15.20	-9.1
Miscellaneous manufacturing	76,922	17,573	22.80	117,532	16,369	13.90	-8.9
Transportation	61,875	14,735	23.80	74,748	11,417	15.30	-8.5
Chemicals	21,466	4,010	18.70	23,908	2,808	11.70	-6.9
Pharmaceuticals	29,996	8,536	28.50	48,014	10,406	21.70	-6.8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48,660	10,446	21.50	55,018	8,642	15.70	-5.8
Financial	452,502	80,028	17.70	717,642	89,685	12.50	-5.2
Utilities, gas and electric	115,760	2,928	2.50	124,628	-967	-0.8	-3.3
Motor vehicles and parts	25,379	1,022	4.00	29,756	481	1.60	-2.4
Metals & metal products	7,000	1,318	18.80	24,964	4,160	16.70	-2.2
Oil, gas & pipelines	14,527	-2	-0.0	22,560	-132	-0.6	-0.6
<b>전체 산업군</b>	<b>1,904,096</b>	<b>418,429</b>	<b>22.00</b>	<b>2,747,726</b>	<b>351,456</b>	<b>12.80</b>	<b>-9.2</b>

참고: 296개 기업 조사 참여  
 자료: ITEP, 삼성증권

## (참고) 트럼프 법인세 인하 효과 : 주요 기업

Company	실효 세율 (%)		법인세 절감액 (십억 달러)	영향 ('13~'16년 대비 '18~'21년, %)	
	'13~'16년	'18~'21년		이익	법인세
Verizon Communications	21	8	10.7	18	-52
Walmart	31	17	9.0	-3	-45
AT&T	13	3	8.2	1	-81
Meta	28	18	8.0	372	203
Intel	27	13	7.7	47	-31
Comcast	24	14	6.6	42	-17
Walt Disney	26	8	6.1	-27	-78
Visa	32	18	5.2	74	-2
Lockheed Martin	33	15	5.0	46	-33
Capital One Financial	31	16	5.1	42	-28
Target	34	16	3.4	25	-42
Honeywell International	23	6	2.3	13	-71
FedEx	18	1	2.1	7	-92
Deere	30	13	1.7	2	-54
Archer Daniels Midland	26	6	0.8	-30	-83
Domino's Pizza	29	9	0.4	87	-43

참고: 상장기업의 SEC 신고서를 토대로 분석  
 자료: ITEP, 삼성증권

# PART 03

## 트럼프 산업 정책과 주식 바스켓





## 요약

### ▶ 역사적으로 공화 vs. 민주의 집권기 경제 성과 차이는 불분명

-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긴축 재정 & 감세', 민주당은 '확장재정 & 증세'를 지향
- 그러나 지난 트럼프 1기의 경우 역대 공화당 대통령과 규제 정책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고, 2기의 정책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 예고
- 다만,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을 위해서는 통합 정부의 구성 여부가 중요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낮았던 특징)
-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 산업정책, 대외 관세정책 등에서 큰 변화 예상돼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려할 필요

### ▶ 정책 수혜 바스켓 구성 - 트럼프 vs. 바이든

-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기조로 인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우호적
-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에너지'로 트럼프 2.0이 현실화된다면 밸류체인 전반의 영향 불가피
- 트럼프 바스켓은 '화석 에너지 밸류체인(에너지, 내연차 등), 규제 완화 (금융,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민생(산업재))' 등 주목
- 바이든 바스켓은 '친환경 밸류체인(전기차,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이 핵심
- 두 후보 모두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투자확대를 공언하고 있으나 방향에는 다소 차이
- 바이든은 '전기차, 친환경 관련 투자'를 트럼프는 '화석에너지 인프라, 공공환경 개선, 10개 신도시 건설' 등 공약
- 당사가 구성한 트럼프 바스켓의 경우 일관성 있게 대선 승리 베팅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
- 반면 바이든 바스켓은 6월 이후 상관관계 급격히 약화 (대선 토론의 실망 등이 결합)

### ▶ 정책 바스켓 투자의 주의점

- 테마 바스켓 성과의 지속 여부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결정
- 정책 바스켓의 전술적 대응(대선 직전~직후)과 전략적 대응(취임 1년 이후부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 지속성 확인)으로 구분

# 공화 vs. 민주의 경제 성과 차이 불분명

- 선행연구들은 선거 이후 권력 구조가 경제 및 주식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 (2차 대전 이후 기준)
  - :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분점 정부에 비해서 통합 정부가 크게 낮았다는 점
  - : 이는 통합 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강력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높았던 결과
- 그러나 트럼프 1기의 경우 역대 공화당 대통령과 규제 정책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고, 2기의 정책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
  - : 무엇보다 국내 산업정책, 대외 관세정책 등에서 큰 변화 예상돼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려할 필요

## 美 권력 구조에 따른 경제 및 주식시장 (1945년 이후)

구분	실질 GDP 성장률 (%)	S&P 500		해당 연수	비고
		연간 등락 (%)	변동성 (%)*		
DDR	2.04	15.72	0.90	5	금융위기 후 4년 포함 ('11~'14년)
RRD	2.56	13.72	1.04	8	
DRR	3.18	12.96	0.99	10	
RRR	2.83	12.95	0.71	8	
DDD	3.12	9.29	0.79	24	
RDD	2.78	4.91	0.96	22	
RDR	1.35	-18.20	1.51	2	Tech 버블 붕괴 후 2년 ('01, '02년)
DRD	-	-	-	-	
통합 정부**	3.04	10.20	0.77	32	
분점 정부***	2.69	8.29	1.0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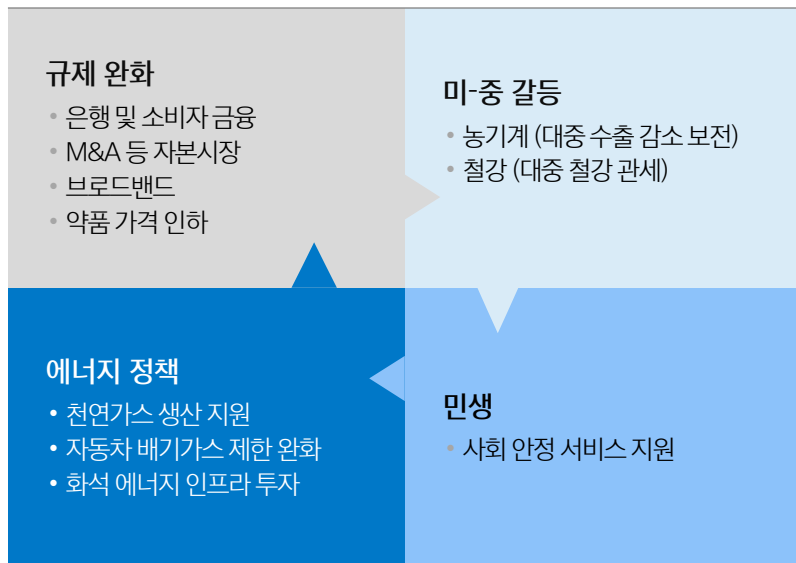
참고: \* 일간 등락률의 연간 표준편차; \*\*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 \*\*\*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 양원 모두 또는 둘 중 하나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자료: FT, 삼성증권 재정리

### Part 3. 트럼프 산업 정책과 주식 바스켓

## 정책 수혜 바스켓 구성 - 트럼프 vs. 바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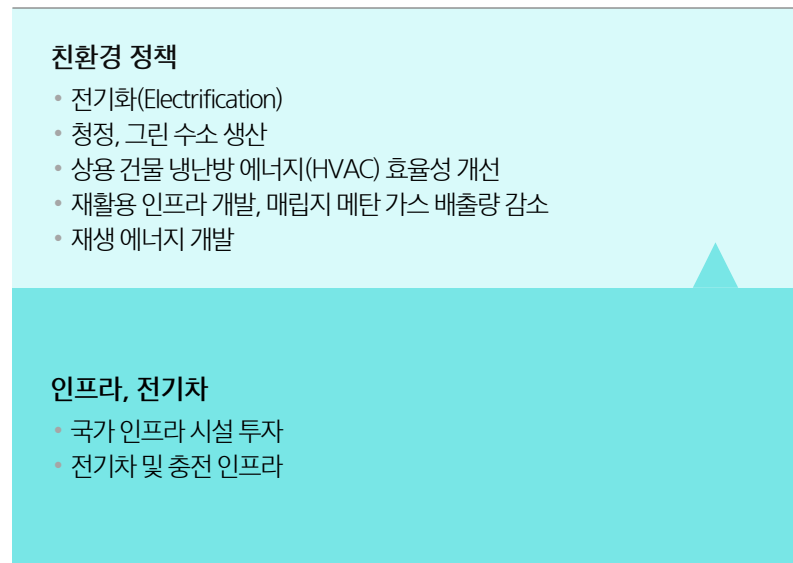
-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기조로 인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 우호적
-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에너지’로 트럼프 2.0이 현실화된다면 밸류체인 전반의 영향 불가피
- 트럼프 바스켓은 ‘화석 에너지 밸류체인(에너지, 내연차 등), 규제 완화(금융,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민생(산업재)’ 등 주목
- 바이든 바스켓은 ‘친환경 밸류체인(전기화,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이 핵심
- 두 후보 모두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투자확대를 공언하고 있으나 방향에는 다소 차이  
: 바이든은 ‘전기차, 친환경 관련 투자’를,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인프라, 공공환경 개선, 10개 신도시 건설’ 등 공약

### 트럼프 2.0 정책 수혜 바스켓



자료: 삼성증권

### 바이든 2.0 정책 수혜 바스켓



자료: 삼성증권

# 트럼프 2.0 바스켓 - 기업 리스트(1)

정책 테마	수혜 기업명	티커	산업
농기계 (대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손실 지원)	Tractor Supply	TSCO	경기소비재
농기계 (대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손실 지원)	Deere	DE	산업재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Bank of America	BAC	금융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Discover Financial	DFS	금융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JP Morgan	JPM	금융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KeyCorp	KEY	금융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Synchrony Financial	SYF	금융
은행 및 소비자 금융규제 완화	Wells Fargo	WFC	금융
M&A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Evercore	EVR	금융
M&A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Goldman Sachs	GS	금융
M&A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Lazard	LAZ	금융
M&A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Morgan Stanley	MS	금융
화석연료 (천연가스 생산 지원)	Cheniere Energy	LNG	에너지
화석연료 (천연가스 생산 지원)	ConocoPhillips	COP	에너지
화석연료 (천연가스 생산 지원)	Exxon Mobil	XOM	에너지

# 트럼프 2.0 바스켓 - 기업 리스트(2)

정책 테마	수혜 기업명	티커	산업
약가 인하 압력 경감	Eli Lilly and Company	LLY	건강관리
약가 인하 압력 경감	Bristol-Myers Squibb	BMJ	건강관리
약가 인하 압력 경감	Amgen	AMGN	건강관리
약가 인하 압력 경감	Biogen	BIIB	건강관리
약가 인하 압력 경감	Johnson & Johnson	JNJ	건강관리
약가 인하 압력 경감	Merck	MRK	건강관리
Medicare Advantage (MA) 장려	Humana	HUM	건강관리
Medicare Advantage (MA) 장려	UnitedHealth	UNH	건강관리
배기가스 배출 제한 완화	Ford	F	경기소비재
배기가스 배출 제한 완화	General Motors	GM	경기소비재
대중 철강 관세	Nucor	NUE	소재
대중 철강 관세	Steel Dynamics	STLD	소재
브로드밴드 규제 완화	AT&T	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브로드밴드 규제 완화	Charter	CHTR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브로드밴드 규제 완화	Comcast	CMCSA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브로드밴드 규제 완화	T-Mobile	TMUS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브로드밴드 규제 완화	Verizon	VZ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회 안정 (범죄 처벌 강화)	Geo Group	GEO	산업재
사회 안정 (범죄 처벌 강화)	Core Civic	CXW	산업재
트럼프 관련 기업 (바스켓에는 미포함)	Trump Media & Technology	DJ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트럼프 관련 기업 (바스켓에는 미포함)	Phunware	PHUN	IT

# 바이든 2.0 바스켓- 기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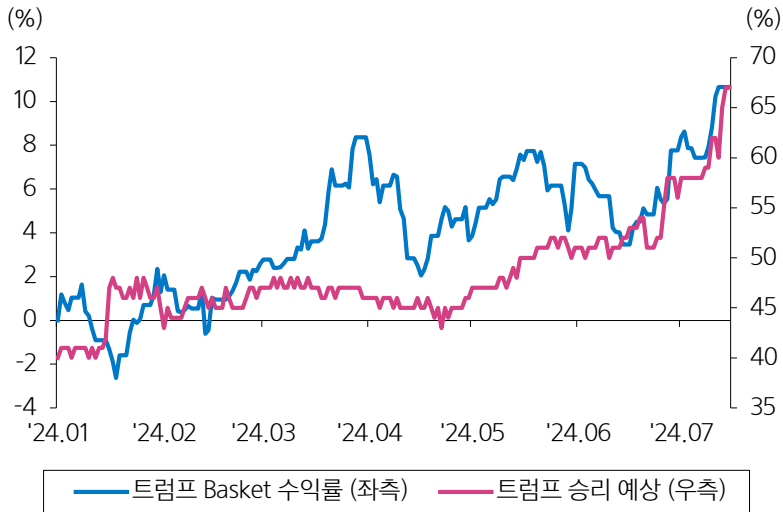
정책 테마	수혜 기업명	티커	산업
전기화(Electrification)	Eaton	ETN	산업재
전기화(Electrification)	Quanta Services	PWR	산업재
전기화(Electrification)	GE	GE	산업재
전기화(Electrification)	Emerson Electric	EMR	산업재
전기화(Electrification)	VERTIV	VRT	산업재
청정, 그린 수소 생산	Air Products and Chemicals	APD	소재
청정, 그린 수소 생산	Equinor	EQNR	에너지
청정, 그린 수소 생산	BP	BP	에너지
상용 건물 냉난방 에너지(HVAC) 효율성 개선	Johnson Controls	JCI	산업재
상용 건물 냉난방 에너지(HVAC) 효율성 개선	Trane Technologies	TT	산업재
재활용 인프라 개발, 매립지 메탄 가스 배출량 감소	Republic Services	RSG	산업재
재활용 인프라 개발, 매립지 메탄 가스 배출량 감소	Waste Management	WM	산업재
재생 에너지 개발	First Solar	FSLR	IT
재생 에너지 개발	NextEra Energy	NEE	유틸리티
재생 에너지 개발	Sunrun	RUN	산업재
재생 에너지 개발	Sunpower	SPWR	산업재
재생 에너지 개발	Enphase Energy	ENPH	IT
국가 인프라 시설 투자	AECOM	ACM	산업재
국가 인프라 시설 투자	Caterpillar	CAT	산업재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Tesla	TSLA	경기소비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연초 이후 성과 review (1) - 트럼프 바스켓 vs. 바이든 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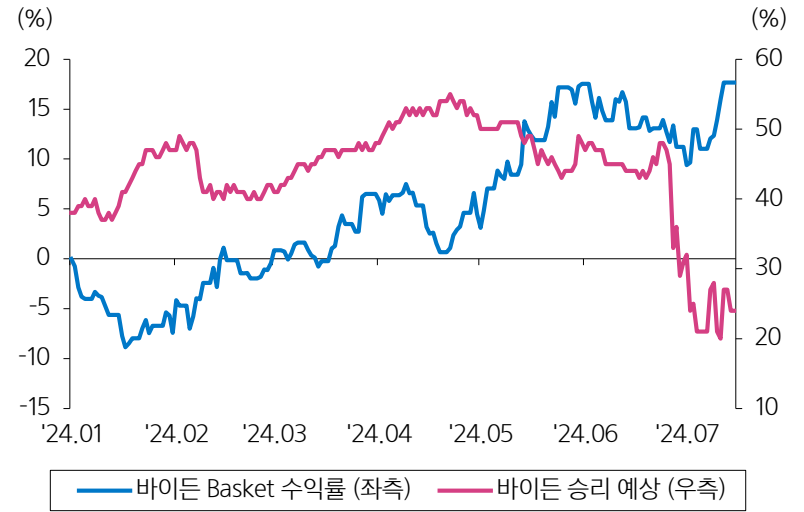
- 트럼프 바스켓(34개 종목)과 바이든 바스켓(20개 종목)은 6월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
  - : 트럼프 바스켓의 경우 일관성 있게 대선 승리 베팅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
  - : 바이든 바스켓은 6월 이후 상관관계 급격히 약화 (역대 6월을 기점으로 판세가 굳어지는 경향, 대선 토론의 실망 등이 결합)
- 다만 바스켓 성과의 지속 여부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 받음을 주의
  - : 대선 판도, 의회 등 권력 구조, 집권 이후 정책 추진력 등 (34pg 참고)

## 트럼프 바스켓 연초 이후 성과 vs. 트럼프 승리 베팅



참고: 트럼프 바스켓으로 분류한 34개 종목 동일 비중 평균 수익률 기준  
자료: Bloomberg, PredictIt, 삼성증권

## 바이든 바스켓 연초 이후 성과 vs. 바이든 승리 베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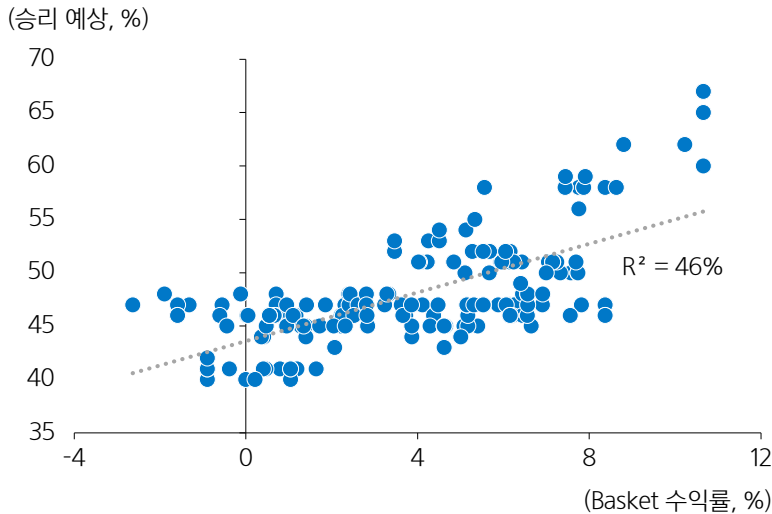


참고: 바이든 바스켓으로 분류한 20개 종목 동일 비중 평균 수익률 기준  
자료: Bloomberg, PredictIt, 삼성증권

## 연초 이후 성과 review (2) - 트럼프 바스켓 vs. 바이든 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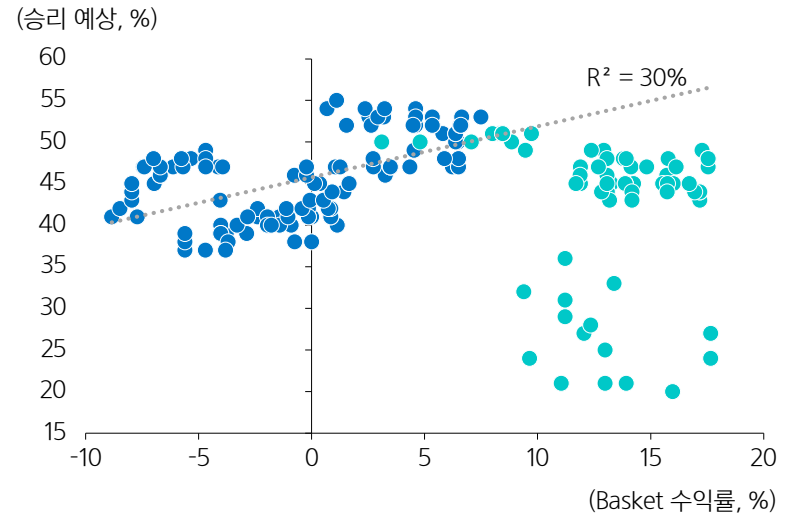
- 트럼프 바스켓(34개 종목)과 바이든 바스켓(20개 종목)은 6월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
  - : 트럼프 바스켓의 경우 일관성 있게 대선 승리 베팅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
  - : 바이든 바스켓은 6월 이후 상관관계 급격히 약화 (역대 6월을 기점으로 판세가 굳어지는 경향, 대선 토론의 실망 등이 결합)
- 다만 바스켓 성과의 지속 여부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받을 수 있음
  - : 대선 판도, 의회 등 권력 구조, 집권 이후 정책 추진력 등(34pg 참고)

### 트럼프 바스켓 vs. 트럼프 승리 베팅 상관관계



참고: 트럼프 바스켓으로 분류한 34개 종목 동일 비중 평균 수익률  
자료: Bloomberg, PredictIt, 삼성증권

### 바이든 바스켓 vs. 바이든 승리 베팅 상관관계



참고: 바이든 바스켓으로 분류한 20개 종목 동일 비중 평균 수익률, 녹색은 5월 이후  
자료: Bloomberg, PredictIt, 삼성증권



## Part 3. 트럼프 산업 정책과 주식 바스켓

# 정책 바스켓 투자의 주의점

- 테마 바스켓 성과의 지속 여부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결정  
: 정책 바스켓의 전술적 대응(대선 직전~직후)과 전략적 대응(취임 1년 이후부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 지속성 확인)으로 구분

### 2016년 대선 (트럼프 승리) 직후 1~6개월간 'Top & Bottom 5개 업종'의 이후 기간별 성과

1개월			3개월			6개월		
순위	종목	성과 (%)	순위	종목	성과 (%)	순위	종목	성과 (%)
1	OIL & GAS DRILLING	37.4	1	TRADING COMP & DISTRIBUTORS	30.7		.	
2	BANKS	24.5		.		2	REAL ESTATE MGMT & DVLPMT	34.4
3	CONSTRUCTION & ENGINEERING	23.0	3	BANKS	23.2		.	
4	TRADING COMP & DISTRIBUTORS	22.6	4	OIL & GAS DRILLING	19.8	4	BANKS	25.6
5	REAL ESTATE MGMT & DVLPMT	21.9	5	CONSTRUCTION & ENGINEERING	19.7		.	
	.			.		7	HEALTH CARE TECHNOLOGY	22.7
	.		15	REAL ESTATE MGMT & DVLPMT	13.9		.	
	.			.			.	
	<b>S&amp;P 500</b>	<b>5.0</b>		<b>S&amp;P 500</b>	<b>7.2</b>		<b>S&amp;P 500</b>	<b>12.1</b>
	.			.		27	TRADING COMP & DISTRIBUTORS	11.1
	.			.		28	CONSTRUCTION & ENGINEERING	11.1
	.			.		30	HEALTH CARE EQUIP & SUPP	10.7
	.			.			.	
	.		44	HEALTH CARE EQUIP & SUPP	1.3	44	PRSCARE PRODS	3.2
	.		46	HEALTH CARE TECHNOLOGY	0.5	45	BEVERAGES IN	3.0
	.		52	FOOD PRODUCTS	-0.8	47	OIL & GAS DRILLING	1.8
	.		55	PRSCARE PRODS	-1.4		.	
58	BEVERAGES IN	-5.4	58	BEVERAGES IN	-2.8	60	FOOD PRODUCTS	-2.9
59	PRSCARE PRODS	-5.5		.			.	
60	FOOD PRODUCTS	-5.8		.			.	
61	HEALTH CARE EQUIP & SUPP	-6.5		.			.	
64	HEALTH CARE TECHNOLOGY	-8.7		.			.	

참고: S&P500 Level 3 업종 기준, 분홍색은 대선 직후 1개월 Outperformer, 파랑색은 Underperformer  
자료: Refinitiv, 삼성증권

# 권력 구조가 역시 관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 좌우

- 통합 정부(Unifi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로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강력해짐
- 이와 달리 분점 정부 (Divided government)는 법안 통과, 조약 비준, 내각 및 법원 인사 등에서 의회의 협조가 중요
  - : 1970년대 이후 빈번한 현상(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순기능 vs. 정책 추진에서 과도한 정치화 비판)
  - : 정치적 합의의 난관으로 일몰조항을 통한 법률 통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권력 구조 변화

연도	1945~1946	1947~1948	1949~1950	1951~1952	1953~1954	1955~1956	1957~1958	1959~1960	1961~1962	1963~1964	1965~1966	1967~1968	1969~1970	1971~1972	1973~1974	1975~1976	1977~1978	1979~1980	1981~1982	1983~1984	1985~1986	1987~1988	1989~1990	1991~1992	1993~1994	1995~1996	1997~1998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2007~2008	2009~2010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2023~2024		
대통령	F. Roosevelt / Truman		Truman				Eisenhower				Kennedy / Johnson		Johnson		Nixon		Nixon / Ford	Ford	Carter		Reagan				G.H.W. Bush		Clinton				G.W. Bush				Obama				Trump		Biden	
대통령 소속 정당	D	D	D	D	R	R	R	R	D	D	D	D	R	R	R	R	D	D	R	R	R	R	R	R	D	D	D	D	R	R	R	R	D	D	D	D	D	D	R	R	D	D
상원 다수당	D	R	D	D	R	D	D	D	D	D	D	D	D	D	D	D	D	D	R	R	R	D	D	D	D	R	R	R	D	R	R	R	D	D	D	D	R	R	R	D	D	
하원 다수당	D	R	D	D	R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R	R	R	R	R	R	R	D	D	R	R	R	R	D	D	R	
권력 구조	통합	분점	통합	통합	통합	분점	분점	분점	통합	통합	통합	통합	분점	분점	분점	분점	통합	통합	분점	분점	분점	분점	분점	분점	통합	분점	분점	분점	분점	분점	통합	통합	분점	통합	분점	분점	분점	분점	통합	분점	통합	분점

참고: 권력 구조에서 통합 정부(Unifi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원, 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 다른면 분점 정부 (Divided government)  
 자료: 삼성증권

# PART 04

##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시사점



# 요약

▶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자산별 예상 선호** (아래는 당사의 現 House view가 아니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제시)

자산	트럼프 승리			바이든 승리		
	비선호	중립	선호	비선호	중립	선호
<b>글로벌 자산시장</b>						
주식	□	□	■ ■	□	□	■
채권	■	□	□	■	□	□
현금	□	■	□	□	■	□
<b>주식 (주식 비중 내에서 상대 선호도)</b>						
미국	□	□	■ ■	□	□	■
유로존	□	■	□	□	□	■
중국	■ ■	□	□	■	□	□
한국	□	■	□	□	■	□
<b>주식 테마/섹터 (개별 테마/섹터 선호도)</b>						
Big Tech	□	■	□	■	□	□
헬스케어(제약)	□	■	□	■	□	□
인프라	□	□	■	□	■	□
OLD 에너지 (미국 內)	□	□	■ ■	■	□	□
OLD 에너지 (미국 外)	■	□	□	□	□	■
NEW 에너지	■ ■	□	□	□	□	■ ■
성장주	□	■	□	■	□	□
가치주	□	□	■	□	■	□
<b>원자재</b>						
상품(ex 금)	□	□	■	□	■	□
금	□	□	■	□	□	■
달러	■	□	□	□	■	□

참고: 대선 이후 정책 기조 확인 후, 투자 기간 1년, ■■는 강력의 의미.  
자료: 삼성증권

# 권력 시나리오 별 경제, 금융시장 영향 전망

- 정치, 외교적 갈등 소지와 달리 금융시장은 트럼프를 더 선호 (親시장적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 등 때문)
  - : 단, 통합 정부가 아니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의 집행력은 한계
  - : 6.27 TV토론 불구 권력 구조 RRR 확률(15.7%)이 여전히 RRD확률(20.6%)보다 낮은 상황 (11pg 참고)

구분	권력 구조	내용,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비고
정책	(RRD)	감세 정책 (연장, 제한적 강화) / 관세 인상 / 화석에너지 정책 강화 / 규제 완화	
	(RRR)	감세 정책 강화 / 관세 인상 / 화석에너지 정책 강화 / 규제 완화	
	(DRD)	증세 정책 / 관세 유지 /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 규제 강화	
경제	(RRD)	경제 성장 강화 /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 금리 인하 횟수 축소 / 달러화 초기 강세 → 장기 약세(무역 긴장 심화 시)	영향의 강도는 RRR이 우위
	(RRR)	위 시나리오보다 성장,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달러화 등 상대적으로 중립적	
	(DRD)	위 시나리오보다 성장,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달러화 등 상대적으로 중립적	
채권	(RRD)	금리 상승 압력 소폭 강화 /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 상승	
	(RRR)	금리 상승 압력 대폭 강화 /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 상승	
	(DRD)	임기 초반은 금리 박스권 지속 / 연준 정책 의존도 높아질 것	
주식	(RRD)	親시장적 정책으로 주가 상승 /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 상승은 변동성 요인	
	(RRR)	화석에너지, 금융 등 선호 vs. 소비재, IT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	
	(DRD)	현 상황과 유사하여 주식시장 영향 중립 (친환경 산업 선호 vs. 금융, IT 등의 규제는 변수)	

참고: 권력 구조는 대통령-상원다수당-하원다수당 순  
 자료: 삼성증권

# PART 05

## 참고 (대선 공약 비교)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1) - 통상/무역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트럼프 2.0
통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li> <li>보호무역주의</li> <li>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 기업 리쇼어링 추진</li> <li>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li> <li>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맹국과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li> <li>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미국-일본 지속 가능한 광물 협정 등 양자 협정 체결</li> <li>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을 통한 무역 공급망 회복</li> <li>다자간 무역 협정 출범 및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중남미 미주 파트너십(APEP), APEC 협력 강화</li> <li>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맹국과 우호적인 통상정책</li> <li>신뢰가능한 파트너로의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li> <li>USMCA 등 기존 무역협정 이행</li> <li>WTO 무역 분쟁 시스템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주의 기초</li> <li>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li> <li>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li> <li>All-tariff Policy: 관세를 통해 연방 소득세 대체</li> </ul>
對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중 무역 분쟁 본격화</li> <li>화웨이, ZTE의 통신장비 사용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li> <li>중국 기업 대상 수출 통제 리스트 등재</li> <li>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국 견제 입장은 트럼프와 동일</li> <li>중국으로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이전 조사 시행 및 수출 통제 리스트 추가 등</li> <li>멕시코 우회 수입 루트 모니터링 강화</li> <li>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 관세 대폭 인상 : 철강/알루미늄 (7.5%→25%), 반도체 (25→50%), 리튬이온배터리 (7.5%→25%), 천연 흑연/영구자석 (0%→25%), 전기차 (25%→100%), 태양광 셀 (25%→50%), 항만크레인 (0%→25%) 등 (다만 적용시점은 '24년~최대 26년까지 제품별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만 갈등은 원하지 않음</li> <li>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설 것</li> <li>대중 관세 인상 시행 등 무역 견제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 무역 강경책 고수 -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 단속</li> <li>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 금지 관련 4개년 계획 도입</li> <li>대중 관세 최대 60% 부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평균은 19.3%)</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2) - 금융/경제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트럼프 2.0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제정</li> <li>• 법인세 인하 35% → 21% 영구화, 개인 소득세 인하 (39.6% → 37%) 2025년까지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시행을 통한 세수 확보 정책 제시 (10년 간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 효과)</li> <li>• IRA 법안을 통해 법인세 최저 한계세율 15% 설정, 10억 달러 이상 법인에 자사주 매입 소비세 1%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Y2025년 예산안 발표 통해 부자/대기업 '중세' 기조 공식화</li> <li>: 대형 제약사, 석유회사, 전자기, 대기업 임원 보상 세제 혜택 종료</li> <li>: 법인세율 인상 (현행 21 → 28%), 대기업 최저 세율 15 → 21%로 상향</li> <li>: 자사주 매입 소비세 1% → 4%, 순투자소득세 3.8% → 5% 인상</li> <li>: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독신, 연 소득이 45만 달러 이상인 부부 기준, 개인 소득세 현행 최고 37% → 39.6% 복원</li> <li>: 억만장자 대상 최저 세율 25% 도입</li> <li>: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세율 10.5% → 21% 인상</li> <li>• 아동 세액 공제 적용: 6세 이상 3,000달러, 6세 미만 3,600달러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 유지</li> <li>•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 2.0 (법인세율 21% 영구 유지 → 20% 인하, 개인 소득세 인하(최고 세율 37%) 연장</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 후 첫 3년 간 660만 개 일자리 창출</li> <li>• 미국인 노동자에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제공하기 위해 비자규정 개혁</li> <li>: '20년 6월, IT 전문 비자(H-1B), 비숙련 취업비자(H-28), 주재원 비자(L-1) 발급 중단 행정명령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법, 인프라법 등 토대로 취임 후 3년 간 1,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문에서 80만 개)</li> <li>• 연방정부 고용 계약 근로자 대상 최저 임금 인상 (시간당 10.95 → 15 달러)</li> <li>• 비자 발급 프로그램 중단 행정명령(트럼프)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에너지 및 제조업 등 성장 산업과 관련된 인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숙련 인력 확보</li> <li>• 등록 견습직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li> <li>• 의료, 운송 등 주요 부문의 노동력 공급을 지원</li> <li>• 복지,안전, 안정성, 근로자의 목소리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공급망 재편,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li> <li>• 최대 10개 자유도시(Freedom city)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3) - 환경/인프라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VS 트럼프 2.0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기후협약 탈퇴 (Paris Agreement) (19.11.05)</li> <li>기후 규제 완화, 화석 에너지 생산 증대, 기후 연구 수행기관들의 예산 축소,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CPP 정책 무효화 시도</li> <li>화력발전 장려하는 적정 친환경 에너지 규칙(Affordable Clean Energy Rule)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성명 발표(21.01.20)</li> <li>IRA,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li> <li>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화, 탄소배출량 0% 달성 목표 지지</li> <li>FY2025 예산안을 통해 석유 및 가스 기업 보조금 폐지를 촉구</li> <li>2032년까지 신규 승용차의 67%, 대형트럭의 25%를 전기차로 보장하기 위한 최종 환경 규칙 발표</li> <li>국가 환경 정책 개정안에 서명: 연방 허가 프로젝트 승인 하기 전 환경영향 평가 및 공공 의견 수렴하도록 하는 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를 통한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전기차 생산 장려</li> <li>화석연료세 감면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든 1.0에서 재가입한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li> <li>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 시행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미국 내 원유, 천연가스 등을 개발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li> <li>그린뉴딜 정책 중단, 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 내연기관차 생산 증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li> <li>휘발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가격 인하</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수도, 광대역 통신 및 5G 등 인프라 투자 법안 시도했으나, 양당 간 합의 실패로 인프라 투자 입법화는 무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당적 인프라법 (Bipartisan Infrastructure Act) 최종 서명 (21.11)</li> <li>10년간 1.2조 규모의 투자, 향후 5년간('22~'26) 5,500억 달러</li> <li>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1100억) / 여객철도(660억달러) / 안전 및 연구(110억) / 대중교통(392억) / 광대역 통신망(650억) / 항만 및 해운(166억) / 항공 (250억) / 수도 인프라(550억) / 전력과 그리드 (650억) / 인프라 복원 (472억) / 청정 스쿨버스 및 페리(75억) / EV충전(75억) / 사회연결망(10억) / 환경 오염 인프라 (210억) / 서부 수도 인프라(83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당적 인프라법에 근거한 할당된 예산 규모 집행</li> <li>50억 달러 규모 37개 운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토지에 최대 10여 개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 및 관련 공모전 개최</li> <li>항공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신도시 발전 및 농촌 살리기</li> <li>신도시를 통해 차량 및 주택구입비 인하 : 아메리칸 드림 선사</li> <li>공공장소의 현대화 주도</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4) - 반도체/에너지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VS 트럼프 2.0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공급망 규제 강화 (ex. 화웨이 수출 통제)</li> <li>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촉구 (TSMC 등 미국에 공장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서명 (2022.8)</li> <li>'26년까지 527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li> <li>반도체 제조 (390억), R&amp;D지원 (110억), 반도체 기술 전환, 제품 제작, 인력교육 등 (20억), 반도체 부문 인력 투자(2억), 국제 정보 및 기술 안전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5억)</li> <li>반도체 연구 및 혁신 분야에 향후 5년간(2023~2027) 1,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책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시설 및 조립 라인 공급망 재편</li> <li>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지원 기조</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력발전소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li> <li>청정 전력 계획(Clear power plan) 재검토</li> <li>연안 석유 및 가스 탐사 가능 지역 검토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서명(2022.8)</li> <li>10년 간 4,3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3,690억 달러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파트에 배분 (나머지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원 연장(640억 달러), 서부지역 가뭄 대응 (40억 달러)에 할당)</li> <li>전기차 세액 공제 : 특정주요 광물,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하는 경우 3,750달러 지원, 최대 공제액은 차량당 7,500달러</li> <li>FY2024 예산안에서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언급</li> <li>기업평균 연비 규제제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할당된 예산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 전면 폐지 또는 축소</li> <li>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세액 공제 지원</li> <li>연방 토지에 위치한 석유 저장고 개방</li> <li>자국 내 석유, 천연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li> <li>전략비축유의 재고를 확대</li> <li>원자력 에너지 생산 장려</li> <li>원자력 발전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증대, 원자력 규제 위원회 개편</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5) - 복지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VS 트럼프 2.0
건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네릭 의약품 승인 확대 (FDA 역사상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네릭 의약품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약값 설정으로 폭리 취하는 제약회사 규제</li> <li><b>오바마 케어(Afford Care Act)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2025)</b></li> <li>노인층의 인슐린 가격 35달러 제한, 성인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 무료백신 제공,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2,000달러로 제한(2025~)</li> <li><b>약가 협상 진행:</b> '24년 9월, 10개 의약품의 최종 가격 결정되며 2026년부터 시행 예정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5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협상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약의 월 부담금 2달러로 제한</li> <li>정신 건강 관련 검진 1년에 3번 무료 제공</li> <li><b>바이든 1.0에서 통과된 약가 협상 유지 및 시행</b></li> <li>여성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ex) 리서치 자금 120억 달러 허용</li> <li>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금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오바마 케어 폐지</b></li> <li>대중 수입 관세 부과를 통해 주요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의약품 부족 문제를 종식 →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li> <li><b>대형 제약사들의 해외 판매가 인상, 국내 판매가는 인하</b></li> </ul>
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에 대한 연방 통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7년 4월)</li> <li>비시민자에 대한 복지 규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 학자금 탕감안 제시했으나, 대법원 위헌 판결로 무산</li> <li>'24년 SAVE 플랜(Saving on Valuable Education)을 통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교육 개선 및 대학등록금 지원 증대</li> <li>3~4세 아동들의 유치원 등원 의무화, 학교 선생님 임금 인상, 고품질 튜터링 지원, 노동자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장학금(Pell grants) 증대,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li> <li>미국 기업과 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한 실무 경험 확보</li> <li>주택 비용 인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genda 47을 통해 훌륭한 학교를 위한 10 원천 발표</li> <li>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교장, 교사 고용, 보상, 해임 등 결정, 학부모 권리를 옹호, 전체 학교 선택권, 프로젝트 기반 실습, 직업 및 진로 교육 등 확대</li> <li>아메리칸 아카데미 설립 재정 지원 통한 무료 온라인 대학 설립</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2024 대선 주요 공약 비교 (6) - 기타 정책

	2017~2020년	2021~2024년	2025~2028년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2.0	트럼프 2.0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구금경찰 및 추방군 활용</li> <li>고속권 외국인 이민 제한, 망명자 추방</li> <li>비자 복권으로 알려진(Diversity Visa) 이민 비자 프로그램 폐지</li> <li>연간 난민 수용자 상한 추가 축소 계획 발표 (15,000명)</li> <li>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했다가 '23년 10월 건설 재개</li> <li>이란, 북한 등 6개국 이민 및 여행 금지 중단</li> <li>폐지되었던 DACA 제도 복원 및 개선 지지</li> <li>난민 수용 상한선 15,000명 (트럼프 행정부) → 62,500명(FY2021) → 125,000명(FY 2022) 확대</li> <li>DACA 제도 대상자들에게 오바마 케어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경 보안 인력 1500명 추가 배치</li> <li>안전한 이민을 위한 보호소 추가 설치</li> <li>드론을 활용한 범죄 방지 및 이민자 보호</li> <li>이민 절차 간소화 (6년을 6개월로 단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체류자 노동 허가 중단 및 취소</li> <li>불법 이민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 불허</li> <li>공공주택 입주 금지 등 행정명령 시행</li> <li>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비용을 재향군인 지원으로 전환</li> </ul>
총기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2차 개정안의 보장 적극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악관 산하 총기 폭력예방국 설립 ('23년 9월)</li> <li>법무부에 총기 밀매법 기소 권한 부여</li> <li>Safer America plan 발표 ('22년 7월) : 10만명의 경찰관 추가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실시</li> <li>공격용 무기, 대용량 탄창 금지, 안전한 총기 보관 요구 등 촉구</li> <li>총기 제조업자 책임 면제 폐지, 일련번호 없는 총 소지 금지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주에서 총기소지 허가 목표</li> <li>학교와 군사기지에서 총기 금지구역 완화</li> <li>공립학교가 무장 경비원 고용 하도록 자금 지원</li> </ul>
국방/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정책</li> <li>북미정상회담 3차례 개최 등 고위급회담 중시, 대북 추가 제재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성에 기반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전통적 동맹외교 기조</li> <li>NATO 동맹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호성을 통한 미국 국익 극대화</li> <li>NATO 재검토</li> <li>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li> </ul>

자료: 외신 종합 보도, House.gov, The white house, Agenda 47 등 참고, 삼성증권 정리

#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p><b>2Q Review (4월~6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4/10) 한국 국회의원/재보궐 선거</b> : 범야권(187석), 여권(108석)으로 마무리</li> <li><b>(5/30) 트럼프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 판결</b> : 입막음 스캔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li> <li><b>(6/4) 인도 하원 선거</b> : BJP 압승 실패했으나, 모디 총리 3연임 확정</li> <li><b>(6/27) 美 대선 후보 CNN TV 토론회</b> : 트럼프 우위 지속, 민주당 후보 사퇴 압력 표출</li> <li><b>(6/28)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b> : 당초 강경파 우세 전망과 달리, 개혁파 당선</li> </ul>	<p><b>2024년 7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7/4) 영국 조기 총선</b>    보수당 집권 14년에 종지부 : 노동당 압승(412석 vs. 보수 121석),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 총리 등극</li> <li><b>(7/7)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 투표</b>    형의회(Hung Parliament) : 좌파연합 NFP가 182석으로 1당, 극우정당 RN 142석으로 예상 하회</li> <li><b>(7/9~11) NATO 정상회의</b>    동맹 수립 75주년 기념 : 워싱턴 공동성명,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우려 표명 :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는 조력자로 규정</li> <li><b>(7/15~18)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b>    <b>트럼프, 공식후보 지명</b> : 바이든, 사퇴 압박 무마 위해 15일 공화당 지지주인 텍사스 방문 계획</li> <li><b>(7/15~18) 중국 20기 3중 전회</b>    <b>경제 실리주의로의 회귀</b> : 시진핑 3기 경제 어젠다로 신품질 생산력 제시</li> </ul>	<p><b>8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7/26~8/11) 프랑스 하계 올림픽</b> :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li> <li><b>(8/1) 미국, 대중국 고관세 조치 효력 발생일</b> : 전기차,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li> <li><b>(8/19~22)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b> :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최 예정</li> <li><b>(8/22~24) 미국 잭슨홀미팅</b> : 금융시장, 금리 인하 시그널 제시 여부에 관심</li> <li><b>(8월 중) 중국 베이징 대화 회의</b></li> </ul>		
<p><b>9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9/10) 미국 ABC 대선 후보 TV 토론회</b></li> <li><b>(9/17~18) 연준 FOMC</b> : 한국시간 9월 19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SEP 발표</li> <li><b>(9/18) 트럼프 前 대통령, 입막음 스캔들 사건 재판 형량 선고일</b></li> <li><b>(9/22~23) 2024 UN 미래 정상회의</b></li> </ul>	<p><b>10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0/6) 브라질 상파울루 지방선거</b></li> <li><b>(10/7)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1주년</b></li> <li><b>(10월 중) 브릭스(BRICS) 정상회의</b> : 러시아 개최, 사우디, 이란 등 새로운 회원국 참여하는 첫 회의</li> </ul>	<p><b>11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1/5) 미국 대통령 선거</b></li> <li><b>(11/6~7) 연준 FOMC</b> : 한국시간 11월 8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SEP 발표</li> <li><b>(11/10~16) APEC 정상회의</b> : 페루 개최, 핵심의제는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li> <li><b>(11/18~19) 제19차 G20 정상회의</b></li> </ul>	<p><b>12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2/1) OPEC+ 장관급 회의</b></li> <li><b>(12/17~18) 연준 FOMC</b> : 한국시간 12월 19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SEP 발표</li> <li><b>(12/17)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b></li> <li><b>(12월 중) 중국 12월 정치국 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b></li> </ul>	<p><b>2025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20) 美 대통령 취임식</b> : 트럼프 당선 시, 취임 직후 IRA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 높</li> <li><b>(2/9) 에라도르 총선거</b></li> <li><b>(4/13~10/13) 일본 오사카 엑스포</b></li> <li><b>(5/18) 폴란드 대통령 선거</b></li> </ul>

참고: 현지 시각 기준, 붉은색 글씨는 대선 관련 이벤트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분석 2020년 12월**

- 이슈1. 지정학분석이 필요한 이유
- 이슈2. 지정학위험과 영향
- 이슈3. 2021년 3대 지정학위험



**지정학분석 2021년 1월**

- 이슈1. 북한 8차 당대회 결과와 시사점
- 이슈2.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
- 이슈3. GPR로 본 관철국가



**지정학분석 2021년 2월**

- 이슈1. 美 NSC 핵심들의 對중국 시각
- 이슈2. 바이든 인선의 포석
- 이슈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3월**

- 이슈1. 미국의 對중국 「기술유출 통제 기구와 법안」
- 이슈2.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금융시장 법안」
- 이슈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4월**

- 이슈1. 미국의 「차이나 디커플링」 전략 시작
- 이슈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 이슈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5월**

- 1. 디지털 화폐의 출현과 통화패권
-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추진 현황
-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6월**

- 이슈1. 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상
- 이슈2. 중국의 일대일로와 도전
- 이슈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7월**

- 이슈1.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발표
- 이슈2. 유럽 그린딜의 이해
- 이슈3. EU의 탄소배출 감축메커니즘



**지정학분석 2021년 8월**

- 이슈1. Geopolitical Alpha
- 이슈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9월**

- 이슈1. 사-독트린(Xi-Docctrine)의 시대
- 이슈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 이슈3. 시진핑 2기와 투자 시사점
- 이슈4. 중국 자본시장의 기타 쟁점



**지정학분석 2021년 10월**

- 이슈1. 북한 경제상황 점검
- 이슈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연말호**

- 이슈1. 2022년 7대 지정학 위험
- 이슈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분석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위기 긴급 점검



**지정학분석 2022년 2월**  
 한반도 위기, 테러부 2017?



**지정학분석 2022년 3월**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지정학분석 2022년 4월**  
 이슈 1. 마이란 핵 협상, 인플레이션의 게임체인저가 될까?  
 이슈 2. 주요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2년 5월**  
 이슈 1. 지정학 시대의 본격화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2년 6월**  
 이슈 1. 2022년 미국 중간선거 Preview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반도체)**  
 이슈 1. 지정학 시대의 도래  
 이슈 2. 반도체 거점화의 시대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자동차)**  
 이슈 1. 지정학 시대, 갈등 전개의 다층적 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 완성차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이슈 1. 안보투자 전성시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1. 마중 패권경쟁  
 이슈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3. 이란과 중동 불안  
 이슈 4.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지정학 분석 2023년 2월**  
 이슈 1. 2023년 라우 전쟁 전망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3월**  
 이슈 1. 중국의 미국관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3년 4월**

이슈 1. OPEC+ 전격 감산 발표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5월**

이슈1. Great Decoupling 시대  
 이슈2. Great Decoupling 시대의 투자  
 이슈3. Great Decoupling 시대의 승자와 그림자



**지정학 분석 2023년 6월**

이슈1. BRICS 공동통화의 도전  
 이슈2. 통화와 패권



**지정학 분석 2023년 8월**

이슈1. 중국의 경제 개혁다짐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9월**

이슈1. BRICS의 확장과 시사점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0월**

이슈1. 지정학노선과 무역재편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1월**

이슈1. 2024년 지정학 전망  
 이슈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



**지정학 분석 2024년 1월**

이슈1. 2024년 미국 선거 개요  
 이슈2. 바이든 승리 가능성과 트럼프 2.0 미러보기  
 이슈3. 금융시장 시사점



**지정학 분석 2024년 3월**

이슈1. 바이든 vs 트럼프 rematch  
 이슈2. 미국 금융시장 시사점  
 이슈3. 2024 미국 선거 개요



**지정학 분석 2024년 4월**

이슈1. 자본주의 4.0과 투자의 미래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4년 6월**

이슈1.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 Compliance Notice

---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http://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